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율법 제목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 마태복음
5장 13-20절
 (율법, 빛과 소금, 마태복음, 신약, 산상보훈, 율법주의 타파)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5:13-20)

세상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컷 비웃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걸까?
 -선한 기독교인들은 중보의 기도가 좋다. 그와 관련된 자들을 응원하고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선한 것이다. 요즘은 선플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효과적인 선플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할 때가 되었다.

세상에 죄악이 많음을 보면서 다들 저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 악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녀두리를 하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속이고 보내시지 않았다. 아니면 '네가 세상에 나가 봤자 너도 어쩔 수 없이 죄악과 타협하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허송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일까? - 결코 아니다.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거나 앓는가?

하나님 이럴줄 몰랐네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재능을 조금만 더 허락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지는 았을텐데요. 그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정성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상황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신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았겠는가?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위한 맛을 내자.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을 느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는 맛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지 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너마저... 맛을 잃으면 았되는데... 하시지 았도록 하자.

우리가 맛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쉬울까, 악한 행실이 쉬울까? 악한 행실이 더 쉽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앎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는 착한 행실이 훨씬 더 쉽다.

설령 어렵더라도 착한 행실을 반드시 해야 하며, 쉽더라도 악한 행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물론 선한 행실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방해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 왜냐면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마귀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신중히 여겨서 더욱 힘써 선행을 실천해야 하리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모세 오경에 있는 계명을 말하고, 선지자는 그 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들을 말한다.

계명에는 십계명과 제사법, 정결법이 있다. 정결법은 의식주와 깊은 관계가 있고, 위생과 관계가 있다. 이 법은 오늘날 국가적 차원과 건강을 다루는 것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

제사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

율법에서 오늘 우리에 남겨진 계명은 십계명이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특히 잘 설명하셨다. 문자적이거나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법정신을 깨우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로 들면,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것조차 그를 죽이는 죄라고 하셨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고르반(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예를 들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5계명의 정신을 상실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공경 등한시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전통을 발달시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 인해 교만해졌을 뿐 아니라, 수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 시키든지, 왜곡 시키든지 해서 정작 해야 할 선행을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하도록 해서 짐이 되게 하였고,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고, 사소한 것들은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율법과 선지자가 오히려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서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에는 거짓선지자와 이단들의 활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니 어찌 더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각자 스스로는 철저히 자신의 행실과 말을 돌아보아 반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일단은 내 가정에서부터 선한 행실이 몸에 익어야 한다. 가족이라 소홀하기 쉽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주고 받는다.

그리고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어떤 상처들은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런 상처들은 빨리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가족이 용서를 빌거나, 상처를 주는 언행을 그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상처의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물론 상처를 입힌 가족이 잘못을 뉘우치면 상처받은 나도 위로가 되겠지만 정작은 그 뉘우침이 뉘우치는 그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뉘우침을 기다린다면 그는 기다리면서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잘못을 한 사람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렵게 된다.

상처를 입은 순간이나, 그 다음날이나 늦어도 그 7일 이내에 잘못을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며, 무엇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한다. 잘못을 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6개월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씩 되새김질 해 주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세월속에 자신의 잘못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며 언행을 고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 언행을 고치기까지 그 사람에게 향한 선행을 유보한다면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 가족에게 베푸는 선행으로 나는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정작 선행의 우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란 예배와 헌신과 예물과 전도이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선행도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선행에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이단척결 제목: 무함마드(마호멧)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말씀: 요일4장1절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일
4:1)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석 목사의 저서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를 중심으로 설교함.